

농진원, 농약공정분석방법 고도화로 농약 품질관리 강화

한국농약분석협의회와 농약 분석기준 개선 공동연구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한국농약 분석협의회와 함께 농약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공정분석방법' 고시 개정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한다.

'농약공정분석방법'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999년 제정된 국가 표준 시험 기준이다. 농약 제품의 유효성분 확인, 함량 분석, 품질 특성 평가 등에 필요한 분석 절차와 시험 조건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제조·수입·유통 단계에서 농약 제품의 품질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분석 장비가 정밀해지고 농약 제품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복합제, 액상수화제, 미세입제 등 새로운 제품이 늘면서 기존 시험방법만으로는 성분별 특성과 제품 형태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제품 형태를 고려해 전처리, 성분 분리, 정량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한다. 또한 시험방법의 정확도, 정밀도, 실험실 간



▲농약공정분석(농진원 제공)

재현성을 확인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진원은 2012년부터 한국농약 분석협의회와 공동연구를 이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2개 성분에 대한 신규 또는 개선 분석방법이 '농약공정분석방법' 고시 개정에 반영됐다.

지난해 살균제 티람 1개 성분과 살충제 뷰프로페진·비펜트린 2개 성분에 이어 올해도 산업 현장의 수요와 분석 난이도를 고려해 3개 성분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앞으로 농진원은 시험·연구로 축적한 분석자료와 현장 적용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공정 분석방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꿀벌 월동 성패, 겨울철 '기온 안정성'이 좌우

기온 변동성이 꿀벌 생존에 영향 미쳐

농촌진흥청이 꿀벌의 월동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환경요인이 겨울철 기온의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다양한 기후 조건의 양봉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기온 특성과 꿀벌 월동 성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Apidologie」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국 8개 권역 40개 양봉장, 1만805개 벌무리를 대상으로 월동 전후 상태와 기상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월동 성공률은 69.1%였으며, 월동에 성공한 벌무리도 벌집 수 기준 평균



▲꿀벌 자료사진

41.3%의 세력 감소를 겪었다.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 자체는 월동 성공률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었지만, 기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의 벌무리에서 월동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꿀벌은 벌통치(봉구)를 형성해 내부 온도를 유지하며 겨울

을 나는데, 외부 기온이 반복적으로 크게 변하면 에너지와 저장 먹이 소모가 늘어 월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가 겨울철 기온 변동성이 커지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온도 안정성이 꿀벌 월동 관리의 핵심 요소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부 기온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실내 월동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과장은 "기후변화로 겨울철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꿀벌 월동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내 월동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형 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바이오앰, 협력 맞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그린바이오 전문기업 ㈜바이오앰과 협력해 첨단 식물 생명공학 기술의 산업화에 속도를 낸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1일 경북 포항 소재 ㈜바이오앰 본사에서 '그린바이오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

이 보유한 식물 생명공학 원천 기술과 바이오앰의 식물 기반 생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연구 성과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앰은 식물 단백질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식물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생

산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스그린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기술 정보 교류 △연구시설 및 첨단 분석 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반기별 실무 연구 교류회를 정례화해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밀폐형 식물공장 과 동물 백신 제조시설 등 양측의 연구 인프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농, '오호라·항공스타·노린나방방·살리미' 활용 추천

벼 생육 후기 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수도 병해충 발생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출수가 전후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후기 병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벼멸구와 흑명나방, 노린재 등 해충까지 동시 발생이 우려되면서 후기 병해충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광역 공동방제 확대 영향으로 드론과 무인헬기 등을 활용한 항공방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농의 수도용 살균제 '오호라'·액상수화제와 '항공스타'·액상수화제는 유·무인항공기 및 광역살포기를 활용한 수도 후

기 병해 관리에 적합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흰잎마름병 등 수도 주요 병해에 안정적인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공방제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항공스타'는 수도 7대 병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종합살균제로, 예방과 치료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침투이행성과 침달성이 우수해 속효성과 지속성이 뛰어나며, 출수가 전후 병해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오호라'는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세균병 등에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ULV 및 드론 방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침투이행성을 기반으로 예방과 치료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후기 병해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농 제품개발팀 관계자는 "오호라와 항공스타를 활용한 병해 관리, 노린나방방과 살리미를 활용한 해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할 경우 안정적인 후기 생육 관리와 고품질 벼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도매시장 안전관리 강화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유통인의 재난위기 대응역량 강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강서시장 입주자와 유통인

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1일 마곡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및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공사와 유통인, 자회사 등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

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에 이어 지진·태풍·수압 체험, 화재진압 및 연기피난 체험, 완강기 사용법 등 실제로 도매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다양한 실전 교육들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였다.

이봉준 강서지사장은 "재난과 응급상황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왼쪽 두번째부터 바이비 김국연 대표, 스위트바이오 오종민 대표, 조니스그로서리 정다솜 대표

새마을금고중앙회 MG파숨봉사단, 여름철 삼계탕 나눔 봉사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서울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에서 '건강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

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난 5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대표 봉사단 'MG파숨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정성을 담아 준비한 삼계탕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거래정보, 휴업일, 행사·축제 등
가락·강서시장 관련 각종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농수산물 출하 가능 일정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카카오톡으로 가락시장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